

Devarim Ch. 29

Verse 9

“All of you are standing today before YHWH your Elohim: your leaders, your tribes, your elders and your officers, all the men of Yisrael.”

PaRDeS

Peshat: Moshe gathers the entire nation before YHWH. Covenant renewal is not limited to leaders or priests; all Yisrael stands together.

Remez: The words “**standing today**” suggest spiritual readiness. Yisrael is not merely present physically; the people are positioned before YHWH to hear and respond.

Drash: Before YHWH, social distinctions do not determine covenantal worth. Leaders, elders, officers, and ordinary people all stand under the same Torah.

Sod: The many members of Yisrael stand as one covenantal body. Individual souls remain distinct, yet together they reveal the unity of the people belonging to YHWH.

Energetic Flow

Gathering → Standing → Hearing → Covenant

YHWH gathers individuals into a covenant community. The first movement is not doing but **standing consciously before Him**.

Meaning

“오늘 너희 모두가 너희의 Elohim 야훼 앞에 서 있으니 곧 너희의 우두머리들과 지파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Yisrael 의 모든 남자이며.”

페샤트: Moshe 는 온 백성을 야훼 앞에 모읍니다. 언약의 갱신은 지도자나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Yisrael 이 함께 섭니다.

레메즈: **“오늘 서 있다”**는 표현은 영적인 준비를 암시합니다. Yisrael 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उपस्थित 한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기 위해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드라쉬: 야훼 앞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언약적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장로와 관리와 일반 백성 모두가 동일한 Torah 아래에 섭니다.

소드: Yisrael 의 많은 구성원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섭니다. 각 영혼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야훼께 속한 백성의 하나 됨을 드러냅니다.

모임 → 섬 → 들음 → 언약

야훼께서는 개인들을 언약 공동체로 모으십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의식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Covenant begins with recognizing where we stand.
Yisrael stands **before YHWH**, not merely before Moshe.
Torah therefore derives its authority from the One
before whom the people stand.

언약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Yisrael 은 단순히 Moshe 앞이
아니라 **야훼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Torah 의
권위는 백성이 서 있는 바로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Mussar

Ask yourself: **Before whom am I living today?**
Awareness that we stand before YHWH changes how
we speak, choose, judge, and treat others.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야훼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은 우리의 말과 선택과 판단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Verse 10

**“Your little ones, your wives, and your sojourner who
is in the midst of your camp, from the one who cuts
your wood to the one who draws your water.”**

**“너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너희 진중에 있는
나그네와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을 길는 자까지 모두가 함께한다.”**

PaRDeS

Peshat: Moshe explicitly includes families, children,
foreigners, and laborers. No part of the community is
excluded from this covenantal gathering.

페샤트: Moshe 는 가족과 어린아이와 나그네와
노동자들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언약의
모임에서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Remez: From the highest leader to the person
performing the humblest task, everyone stands before
the same YHWH.

레메즈: 가장 높은 지도자로부터 가장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동일한 야훼 앞에 섭니다.

Drash: Covenant responsibility reaches beyond
personal spirituality. Households, children, workers,
and outsiders living among Yisrael are affected by the
holiness of the community.

드라쉬: 언약의 책임은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섭니다. 가정과 어린아이와 일하는 자들과
Yisrael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까지 공동체의
거룩함에 영향을 받습니다.

Sod: The covenant gathers what human society tends to separate. Before YHWH, many stations of life are drawn into one sacred purpose.

소드: 언약은 인간 사회가 분리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야훼 앞에서는 서로 다른 삶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거룩한 목적 안으로 들어옵니다.

Energetic Flow

Great → Small → Stranger → Servant → One Community

큰 자 → 작은 자 → 나그네 → 섬기는 자 → 하나의 공동체

The covenant moves outward until every level of the community is embraced.

언약은 공동체의 모든 계층을 품을 때까지 계속 확장됩니다.

Meaning

Torah is not an elite possession. The child, the stranger, and the laborer belong within the hearing of the covenant just as surely as the elder and leader.

Torah 는 엘리트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나그네와 노동자도 장로와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 속합니다.

Mussar

Never measure another person's spiritual importance by position, education, wealth, or visibility. The person unnoticed by society may be standing immediately beside you before YHWH.

다른 사람의 영적 중요성을 지위나 교육이나 재산이나 눈에 띄는 정도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야훼 앞에서는 바로 당신 곁에 함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Verse 11

You stand here to enter into the covenant of YHWH your Elohim and into the oath that YHWH establishes with you today.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너희의 Elohim 야훼의 언약과 야훼께서 오늘 너희와 세우시는 맹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PaRDeS

Peshat: The gathering has a specific purpose: Yisrael is entering a covenant confirmed by an oath.

Remez: Covenant is pictured almost as a doorway. One does not merely hear about it; one **enters** it.

Drash: Hearing Torah requires response. Knowledge without covenantal commitment leaves the hearer standing outside what YHWH intends.

Sod: Covenant joins the life of the individual to a purpose greater than the individual. Yisrael's identity becomes inseparable from its relationship with YHWH.

Energetic Flow

Standing → Entering → Binding → Belonging

Standing before YHWH leads to entering His covenant; entering creates obligation, and obligation establishes belonging.

Meaning

Biblical covenant is more than agreement with certain beliefs. It establishes a binding relationship expressed through faithfulness and obedience.

Mussar

Do not remain merely an observer of Torah. Ask where the words you hear require commitment, obedience, and change.

페샤트: 이 모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Yisrael 은 맹세로 확증되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메즈: 언약은 마치 문처럼 묘사됩니다. 사람은 언약에 관하여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라쉬: Torah 를 듣는 것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언약적 헌신이 없는 지식은 듣는 자를 야훼께서 의도하신 것의 바깥에 서 있게 합니다.

소드: 언약은 개인의 삶을 개인보다 더 큰 목적에 연결합니다. Yisrael 의 정체성은 야훼와의 관계에서 분리될 수 없게 됩니다.

섬 → 들어감 → 결속됨 → 속하게 됨

야훼 앞에 서는 것은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지고, 들어감은 책임을 낳으며, 그 책임은 소속을 확립합니다.

성경적 언약은 특정한 믿음에 동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실함과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결속된 관계를 세웁니다.

Torah 의 관찰자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듣는 말씀이 어디에서 헌신과 순종과 변화를 요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Verse 12

The purpose is that YHWH establish you today as His people and that He be your Elohim, just as He spoke to you and swore to Avraham, Yitzḥaq, and Ya‘aqob.

PaRDeS

Peshat: The covenant confirms Yisrael as YHWH's people and connects the present generation with the promises given to the patriarchs.

Remez: “**Today**” joins the present generation to an ancient promise. What YHWH began with Avraham continues in their own day.

Drash: Every generation must receive the covenant as something living in the present, not merely as the history of its ancestors.

Sod: Covenant compresses generations together. Avraham, Yitzḥaq, Ya‘aqob, the wilderness generation, and generations yet unborn participate in one continuing covenantal story.

Energetic Flow

Promise → Covenant → People → Presence

YHWH's promise produces covenant identity: “**You are My people, and I am your Elohim.**”

Meaning

그 목적은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고 친히 너희의 Elohim 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Avraham 과 Yitzḥaq 과 Ya‘aqob 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습니다.

페샤트: 이 언약은 Yisrael 을 야훼의 백성으로 확증하고 현재 세대를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연결합니다.

레메즈: ***“오늘”***이라는 말은 현재 세대를 오래된 약속과 연결합니다. 야훼께서 Avraham 과 시작하신 일이 그들의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드라쉬: 모든 세대는 언약을 단순히 조상들의 역사로만 보지 않고 현재 살아 있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드: 언약은 여러 세대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Avraham 과 Yitzḥaq 과 Ya‘aqob, 광야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하나의 계속되는 언약의 이야기 안에 참여합니다.

약속 → 언약 → 백성 → 임재

야훼의 약속은 언약적 정체성을 낳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Elohim 이다.”

The goal of Torah is ultimately relational.
Commandments shape a people who belong to YHWH
and through whom His faithfulness to earlier generations
continues to be revealed.

Torah 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적입니다. 계명은
야훼께 속한 백성을 형성하며, 그들을 통해 이전
세대에게 보이신 그분의 신실하심이 계속
드러납니다.

Mussar

Do not ask only, **“What must I do?”** Ask also, **“Whose
am I?”** Obedience becomes clearer when identity
comes first: **I belong to YHWH.**

단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만 묻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도 물으십시오. 정체성이 먼저
확립될 때 순종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는 야훼께
속해 있습니다.**

Verse 13

**“And not with you alone I am making this covenant
and this oath.”**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세우는 것은 너희와만
하는 것이 아니다.”**

PaRDeS

Peshat: Moshe immediately expands the covenant
beyond those physically assembled before him. The
next verse will explain that its reach extends beyond
the present generation.

페샤트: Moshe 는 즉시 언약의 범위를 자기 앞에
실제로 모여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넓게 확장합니다.
다음 절에서는 그 언약이 현재 세대를 넘어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Remez: **“Not with you alone”** hints that covenant
carries generational responsibility. What one
generation receives must not terminate with that
generation.

레메즈: **“너희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언약에 세대적 책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 세대가 받은 것은 그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Drash: Torah must be transmitted. A generation that
receives covenant but fails to teach it behaves as
though the covenant belonged only to itself.

드라쉬: Torah 는 전수되어야 합니다. 언약을 받고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 세대는 마치 그

언약이 자신들에게만 속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Sod: The covenant creates a spiritual continuity in which generations separated by time nevertheless stand together before YHWH.

소드: 언약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앞에서 함께 서게 하는
영적인 연속성을 형성합니다.

Energetic Flow

Receive → Preserve → Teach → Continue

Covenant received today becomes responsibility
toward tomorrow.

받음 → 보존 → 가르침 → 이어감

오늘 받은 언약은 내일을 향한 책임이 됩니다.

Meaning

Devarim refuses to let Torah become merely the memory of one historic generation. The covenant received at the plains of Moab reaches beyond those standing there. This prepares for the remarkable declaration of the next verse concerning **“the one who is here with us today”** and **“the one who is not here with us today.”**

Devarim 은 Torah 가 단지 어느 한 역사적 세대의
기억으로만 남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Moab
평지에서 받은 언약은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을
넘어갑니다. 이것은 다음 절의 놀라운 선언, 곧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과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 관한 말씀을
준비합니다.

Mussar

Faithfulness thinks generationally. We should not ask only whether Torah is alive in us, but whether our way of living and teaching will help Torah remain alive after us.

신실함은 세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Torah 가 내
안에 살아 있는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떠난 후에도 Torah 가
계속 살아 있게 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But with him who stands here with us today before YHWH our Elohim, as well as with him who is not here with us today.”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우리 Elohim 야훼 앞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PaRDeS

Peshat: The covenant is not restricted to those physically standing before Moshe. It reaches beyond the present assembly to future generations of Yisrael.

페샤트: 언약은 Moshe 앞에 실제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회중을 넘어 Yisrael 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Remez: The repeated word “**today**” makes every generation a covenantal present. Torah is never merely what YHWH said *then*; each generation must hear what YHWH is saying to it **today**.

레메즈: 반복되는 **“오늘”**이라는 말은 모든 세대를 언약의 현재로 만듭니다. Torah 는 단지 야훼께서 그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는 야훼께서 **오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Drash: Jewish tradition understands the covenant as embracing generations yet unborn. Receiving Torah therefore means inheriting both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from those who stood before us.

드라쉬: 유대 전통은 이 언약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Torah 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섰던 이들로부터 특권뿐 아니라 책임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Sod: Time does not divide the covenant people before YHWH. Those who stood with Moshe and those who would arise centuries later participate in one continuing covenantal identity.

소드: 시간은 야훼 앞에서 언약 백성을 나누지 못합니다. Moshe 와 함께 섰던 사람들과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은 하나의 계속되는 언약적 정체성에 참여합니다.

Energetic Flow

Past → Present → Future → One Covenant

과거 → 현재 → 미래 → 하나의 언약

Covenant moves through time without losing its authority. Each generation receives what the previous generation was commanded to preserve.

언약은 그 권위를 잃지 않고 시간을 통과합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가 보존하도록 명령받은 것을 이어받습니다.

Meaning

Torah does not permit us to regard Sinai and the plains of Moab merely as ancient history. Moshe deliberately draws future generations into the event. The question becomes not merely, “**What did they hear?**” but “**How am I standing before YHWH today?**”

Torah 는 Sinai 와 Moab 평지의 사건을 단순한 고대 역사로 바라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Moshe 는 의도적으로 미래 세대를 그 사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단지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떻게 야훼 앞에 서 있는가?”**가 됩니다.

Mussar

Do not inherit Torah passively. Receive it as though you too are standing there **today**. What previous generations preserved for us becomes something we are responsible to preserve for those who come after us.

Torah 를 수동적으로 물려받지 마십시오. 당신도 **오늘**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이전 세대가 우리를 위해 보존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책임이 됩니다.

Verse 15

“For you yourselves know how we dwelt in the land of Mitsrayim and how we passed through the nations which you passed through.”

“우리가 Mitsrayim 땅에 어떻게 거하였으며 너희가 지나온 여러 민족 가운데로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PaRDeS

Peshat: Moshe reminds Yisrael of its experience in Mitsrayim and its journey among foreign nations. They have personally witnessed societies shaped by other gods and other forms of worship.

페샤트: Moshe 는 Yisrael 에게 Mitsrayim 에서의 경험과 이방 민족들 가운데를 지나온 여정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과 다른 형태의 숭배로 형성된 사회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레메즈: Yisrael 은 여러 민족 **가운데를 지나갔지만**

Remez: Yisrael passed **through** the nations but was not meant to become like them. Physical proximity must not become spiritual assimilation.

그들과 같아지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가까움이 영적인 동화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Drash: Exposure creates both knowledge and temptation. Having seen the nations' ways, Yisrael must consciously distinguish between what it has observed and what YHWH has commanded.

드라쉬: 접촉은 지식을 주지만 동시에 유혹도 가져옵니다. 여러 민족의 길을 보았기에 Yisrael 은 자신들이 본 것과 야훼께서 명하신 것을 의식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Sod: The covenant people move through a world filled with competing spiritual loyalties. Their calling is to pass through these environments without allowing those environments to pass into the heart.

소드: 언약 백성은 서로 경쟁하는 영적 충성으로 가득한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그러한 환경을 지나가되 그 환경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Energetic Flow

Exposure → Discernment → Separation → Faithfulness

접촉 → 분별 → 구별 → 신실함

What the eyes encounter must be filtered through covenant wisdom before the heart embraces it.

눈으로 접하는 것은 마음이 받아들이기 전에 언약의 지혜를 통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Meaning

Yisrael's history itself has become a teacher. They know what life among the nations looks like. Therefore they cannot claim ignorance when Moshe warns them against adopting the worship they have witnessed.

Yisrael 의 역사 자체가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Moshe 가 그들이 목격한 숭배 방식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할 때 그들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Mussar

Not everything we encounter should become something we imitate. Spiritual maturity requires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여러 환경을 **지나가면서도**

learning how to **pass through** environments without allowing them to redefine our values.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Verse 16

“And you saw their abominations and their idols which were among them, wood and stone, silver and gold.”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가증한 것들과 우상들 곧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것들을 보았느니라.”

PaRDeS

Peshat: Yisrael has directly seen the idols worshiped by the nations—objects fashioned from ordinary materials such as wood, stone, silver, and gold.

페샤트: Yisrael 은 여러 민족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 같은 평범한 재료로 만들어진 물건들이었습니다.

Remez: Moshe deliberately identifies the materials. Something may appear precious because it is made of silver or gold, yet precious material cannot transform a human creation into Elohim.

레메즈: Moshe 는 의도적으로 그 재료들을 언급합니다. 어떤 것이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졌기에 귀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귀한 재료가 인간이 만든 것을 Elohim 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Drash: Idolatry often begins when humans assign ultimate value to something created. Wealth, power, beauty, institutions, and even religious objects become dangerous when they receive the devotion belonging to YHWH.

드라쉬: 우상숭배는 흔히 인간이 창조된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할 때 시작됩니다. 재물과 권력과 아름다움과 제도와 심지어 종교적 물건도 야훼께 속한 헌신을 받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Sod: Idolatry reverses creation: instead of creation pointing toward the Creator, the human heart stops at the created object and gives it ultimate significance.

소드: 우상숭배는 창조의 질서를 뒤집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가리키는 대신 인간의 마음이 피조물에 머물러 그것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Energetic Flow

Seeing → Desiring → Valuing → Worshiping

봄 → 갈망함 → 가치 부여 → 숭배함

Moshe interrupts the progression at its beginning.
What looks impressive to the eyes must not capture the heart.

Moshe 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것을 끊습니다. 눈에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Meaning

The Torah strips idols of their illusion by naming what they actually are: **wood, stone, silver, and gold**. What the nations call gods are still created materials shaped by human hands.

Torah 는 우상의 실체를 그대로 밝힘으로써 그 환상을 벗겨냅니다. 그것들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일 뿐입니다. 여러 민족이 신이라 부르는 것도 여전히 인간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Mussar

Learn to name things according to what they truly are. Something impressive, expensive, or powerful does not deserve your heart merely because society treats it as important.

사물을 그 실제 모습대로 부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것이 인상적이고 비싸고 강력하다고 해서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으로 당신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Verse 17

“Lest there should be among you a man or woman or clan or tribe whose heart turns away today from YHWH our Elohim, to go and serve the mighty ones of those nations, lest there should be among you a root bearing bitterness or wormwood.”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오늘 우리 Elohim 야훼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일이 없게 하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썩의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PaRDeS

Peshat: Moshe warns against anyone—individual, family, or tribe—turning away from YHWH to serve the gods of the nations. He compares such apostasy to a poisonous root producing bitter fruit.

페샤트: Moshe 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파가 야훼에게서 돌아서서 여러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는 그러한 배교를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뿌리에 비유합니다.

Remez: The danger begins in the **heart** before it appears in outward worship. Likewise, a root grows hidden beneath the ground before its fruit becomes visible.

Drash: Moshe moves from the individual—“man or woman”—to “family” and finally “tribe.” Hidden unfaithfulness may begin privately but can eventually influence an entire community.

Sod: The **root** represents the hidden orientation of the soul. Fruit reveals what the root has been feeding upon. Bitter fruit therefore signals a deeper disorder beneath the visible life.

Energetic Flow

Heart turns → Root grows → Fruit appears →
Community suffers

The visible crisis is often the final stage of something that began quietly within the heart.

Meaning

Moshe identifies the true battlefield of covenant faithfulness: **the heart**. Idolatry does not suddenly appear when someone bows before an image. It begins earlier, when the heart starts turning away from YHWH.

Mussar

레메즈: 위험은 외적인 숭배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뿌리는 그 열매가 보이기 전에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드라쉬: Moshe 는 ****“남자나 여자”**라는 개인에서 시작하여 가족과 마침내 지파로 범위를 넓힙니다. 숨겨진 불신실함은 개인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드: **뿌리**는 영혼의 숨겨진 방향을 나타냅니다. 열매는 그 뿌리가 무엇을 먹고 자라왔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쓴 열매는 눈에 보이는 삶 아래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돌아섬 → 뿌리가 자람 → 열매가 나타남 →
공동체가 고통받음**

눈에 보이는 위기는 흔히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것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Moshe 는 언약적 신실함의 진정한 전쟁터가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우상숭배는 누군가가 우상 앞에 절하는 순간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야훼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됩니다.

Examine roots, not merely fruit. When bitterness, rebellion, jealousy, or spiritual coldness appears, do not address only the outward behavior. Ask what has been quietly taking root in the heart.

열매만 보지 말고 뿌리를 살피십시오. 쓴 마음과 반역과 질투와 영적 냉담함이 나타날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다루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무엇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Verse 18

“And it shall be, when he hears the words of this curse, that he should bless himself in his heart, saying, ‘I have peace though I walk in the stubbornness of my heart,’ in order to add drunkenness to thirst.”

“그가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스스로 복을 빌며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의 완고함대로 걸어도 평안하리라’ 하여 목마른 것에 취한 것을 더할까 함이라.”

PaRDeS

Peshat: Moshe describes someone who hears the covenant warnings yet reassures himself that no judgment will come even while deliberately following his own stubborn heart.

페샤트: Moshe 는 언약의 경고를 듣고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따르면서 아무 심판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안심시키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Remez: The most dangerous deception is **self-blessing**—pronouncing *shalom* over ourselves when YHWH has called us to repentance.

레메즈: 가장 위험한 속임은 스스로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도 자기 자신에게 *shalom*, 곧 평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Drash: Hearing Torah does not automatically transform a person. The same warning that softens one heart may cause another heart to invent excuses.

드라쉬: Torah 를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동일한 경고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는 변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Sod: False peace creates an inner counterfeit of covenant blessing. The person attempts to receive the **fruit of obedience—shalom—while preserving the root of rebellion.**

소드: 거짓 평안은 언약의 축복을 내면에서 모조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반역의 뿌리**는

그대로 두면서 순종의 열매인 shalom 을 얻으려 합니다.

Energetic Flow

Hearing → Rejecting → Self-justifying → False peace
→ Hardening

들음 → 거부함 → 자기 합리화 → 거짓 평안 →
완고해짐

The person hears the warning but reverses its purpose. Instead of allowing Torah to examine him, he uses his own heart to overrule Torah.

그는 경고를 듣지만 그 목적을 뒤집어 버립니다. Torah 가 자신을 살피게 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으로 Torah 의 말씀을 무효화하려 합니다.

Meaning

This verse exposes a particularly subtle spiritual danger. The person does not deny hearing YHWH's words. **He hears them and then gives himself permission to ignore them.** His confidence in peace is therefore not faith—it is self-deception.

이 절은 매우 미묘한 영적 위험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평안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기만입니다.

Mussar

One of the hardest questions in spiritual life is: **Am I receiving peace from YHWH, or merely giving myself permission to continue unchanged?** True *shalom* does not require us to silence Torah's correction. It grows when the heart becomes aligned with YHWH.

영적 삶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야훼께로부터 평안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참된 *shalom* 은 Torah 의 책망을 침묵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야훼와 일치하게 될 때 자라납니다.

Verse 19

“YHWH would not forgive him, but rather, the displeasure of YHWH and His jealousy shall burn against that man, and every curse that is written in this

“야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야훼의 진노와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하여

book shall settle on him, and YHWH shall blot out his name from under the heavens.”

타오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며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PaRDeS

Peshat: The person described in the previous verse deliberately hears the covenant warning yet chooses stubborn rebellion. Moshe warns that such presumption brings covenant judgment rather than the imagined peace the person promised himself.

Remez: The contrast is between the person's **self-declared peace** and YHWH's actual judgment. Human reassurance cannot overturn divine truth.

Drash: Mercy must never be turned into permission for rebellion. Trusting YHWH's compassion while deliberately rejecting His covenant transforms confidence into presumption.

Sod: To have one's name **“blotted out”** portrays the opposite of covenantal remembrance. Covenant joins a person to YHWH's people; persistent rebellion seeks existence apart from that covenantal identity.

페샤트: 앞 절에서 묘사된 사람은 언약의 경고를 듣고도 의도적으로 완고한 반역을 선택합니다.

Moshe 는 그러한 자기 확신이 스스로 약속한 평안이 아니라 언약의 심판을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레메즈: 여기에는 인간이 스스로 선언한 평안과 야훼의 실제 심판 사이의 대조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위안은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드라쉬: 긍휼을 반역의 허가증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분의 언약을 거부하면서 야훼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을 주제넘은 확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언약적 기억의 반대를 보여줍니다. 언약은 사람을 야훼의 백성과 연결하지만 지속적인 반역은 그 언약적 정체성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합니다.

Energetic Flow

Presumption → Rebellion → Judgment → Removal

What began as a hidden attitude of the heart has now reached covenantal consequences.

주제넘은 확신 → 반역 → 심판 → 제거

마음속의 숨겨진 태도로 시작된 것이 이제 언약적 결과에 이릅니다.

Meaning

The severity of this verse must be read with verse 18. Moshe is not describing someone struggling with weakness and seeking YHWH. He describes someone who knowingly rejects YHWH's warning while assuring himself, **"I shall have peace."** The issue is deliberate covenantal defiance disguised as security.

Mussar

Never confuse YHWH's patience with approval. His patience should lead the heart toward repentance, gratitude, and obedience—not deeper stubbornness.

이 절의 엄중함은 18 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Moshe 는 연약함과 싸우면서 야훼를 찾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야훼의 경고를 알면서도 거부하고 *****"나는 평안하리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문제는 안전함으로 위장된 의도적인 연약적 반역입니다.

야훼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의 승인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마음을 더 깊은 완고함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Verse 20

"And YHWH shall separate him for evil, out of all the tribes of Yisrael, according to all the curses of the covenant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of the Torah."

"야훼께서 Yisrael 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구별하여 재앙을 받게 하시되 이 Torah 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하실 것입니다."

PaRDeS

Peshat: The rebellious individual is singled out from the community to bear the covenant consequences written in Torah.

페샤트: 반역하는 개인은 공동체 가운데서 구별되어 Torah 에 기록된 언약적 결과를 받게 됩니다.

Remez: Earlier Yisrael was **set apart** for holiness. Here the same concept of separation appears tragically reversed: one who rejects holy separation becomes separated for judgment.

레메즈: 앞서 Yisrael 은 거룩함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구별이라는 개념이 비극적으로 뒤집힙니다. 거룩한 구별을 거부하는 자가 심판을 위해 구별됩니다.

Drash: Membership in the community cannot substitute for personal faithfulness. Being surrounded

드라쉬: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인 신실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 가운데

by covenant people does not protect someone who consciously abandons covenant loyalty.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으로 언약적 충성을 버리는 사람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Sod: Holiness and rebellion move in opposite directions. Both produce separation: holiness separates a person **toward YHWH**, while persistent rebellion eventually separates a person **from covenant blessing**.

소드: 거룩함과 반역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둘 다 구별을 가져옵니다. 거룩함은 사람을 **야훼께로 구별하지만**, 지속적인 반역은 결국 사람을 **언약의 축복에서 분리합니다**.

Energetic Flow

Called apart → Choice → Rebellion → Separated away **구별되어 부름받음 → 선택 → 반역 → 멀리 분리됨**

The covenant asks Yisrael to be separated **for** YHWH. Rejecting that calling produces the opposite separation.

언약은 Yisrael 에게 야훼를 **위하여** 구별되라고 요구합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하면 반대 방향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Meaning

The verse protects an important covenant principle: collective identity does not erase individual responsibility. Devarim 29 begins with **“all of you”** standing together, yet each person remains responsible for the direction of his own heart.

이 절은 중요한 언약 원리를 보호합니다. 공동체적 정체성이 개인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Devarim 29 장은 **“너희 모두”**가 함께 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각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의 방향에 책임이 있습니다.

Mussar

A faithful community is a gift, but it cannot obey YHWH in your place. Community strengthens faithfulness; it never replaces personal responsibility.

신실한 공동체는 선물이지만 그 공동체가 당신을 대신하여 야훼께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는 신실함을 강화하지만 개인의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Verse 21

“And the generation to come of your children who rise up after you, and the foreigner who comes from a far land, shall say, when they see the plagues of that land and the sicknesses which YHWH has sent into it:”

“너희 뒤에 일어날 너희 자손의 후대와 먼 땅에서 온 이방인이 그 땅의 재앙과 야훼께서 그곳에 내리신 질병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PaRDeS

Peshat: Moshe now shifts from judgment upon an individual to the possibility of national devastation. Future generations and foreigners will see the consequences upon the land and ask what happened.

페샤트: Moshe 는 이제 개인에게 임하는 심판에서 민족적 황폐의 가능성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미래 세대와 이방인들은 그 땅에 임한 결과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게 됩니다.

Remez: The land itself becomes a **witness**. Covenant faithfulness or unfaithfulness eventually leaves marks visible even to later generations.

레메즈: 그 땅 자체가 **증인**이 됩니다. 언약적 신실함이나 불신실함은 결국 후대가 볼 수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Drash: Every generation leaves something for the next generation to interpret. Our descendants inherit not merely our possessions but also the consequences of the values by which we lived.

드라쉬: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가 해석해야 할 무언가를 남깁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단지 우리의 소유물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았는지에 따른 결과도 물려받습니다.

Sod: History becomes a form of testimony. What was once hidden in human hearts eventually becomes visible across generations.

소드: 역사는 하나의 증언이 됩니다. 한때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결국 여러 세대에 걸쳐 눈에 보이게 됩니다.

Energetic Flow

Hidden choice → Public consequence → Future witness → Question

숨겨진 선택 → 공개적인 결과 → 미래의 증인 → 질문

What one generation chooses may become what another generation must explain.

한 세대가 선택한 것이 다른 세대가 설명해야 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Meaning

Earlier Moshe spoke of those **“not here today.”** Now those future generations appear within the narrative. They will look backward and ask why the land has suffered. Covenant decisions therefore possess a historical dimension.

Mussar

Live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look back and find faithfulness worth imitating rather than consequences they must struggle to understand.

앞에서 Moshe 는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자들”**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 미래 세대가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왜 그 땅이 고통을 받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적 선택에는 역사적 차원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뒤돌아볼 때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아니라 본받을 만한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Verse 22

“All its land is sulphur, salt, and burning; it is not sown, nor does it bear, nor does any grass grow there, like the overthrow of Sedom and Amorah, Admah and Tseboyim, which YHWH overthrew in His displeasure and His wrath.”

“그 온 땅이 유황과 소금과 불탄 땅이 되어 씨를 뿌리지 못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풀도 자라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진노와 분노로 뒤엎으신 Sedom 과 Amorah 와 Admah 와 Tseboyim 의 무너짐과 같을 것입니다.”

PaRDeS

Peshat: Moshe describes extreme devastation by comparing the land's condition to Sedom, Amorah, Admah, and Tseboyim. Fertile land can become barren under covenant judgment.

페샤트: Moshe 는 그 땅의 상태를 Sedom 과 Amorah 와 Admah 와 Tseboyim 에 비교하면서 극심한 황폐를 묘사합니다. 비옥한 땅도 언약의 심판 아래에서는 황무지가 될 수 있습니다.

Remez: The land promised as a place of fruitfulness can become barren when its purpose is rejected. **Gift and responsibility cannot be permanently separated.**

레메즈: 풍성함의 장소로 약속된 땅도 그 목적이 거부되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선물과 책임은 영원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Drash: Blessing should never produce entitlement. The greater the gift, the greater the responsibility to remember the Giver and the purpose for which the gift was given.

Sod: Fruitfulness represents life flowing in proper covenantal order; barrenness portrays that order disrupted. The outward land mirrors an inward covenantal breakdown.

Energetic Flow

Gift → Forgetfulness → Disorder → Barrenness

What was intended to produce fruit becomes barren when the relationship underlying the gift is rejected.

Meaning

The contrast is deliberately severe. Yisrael is about to enter a land repeatedly described as abundant and fruitful. Moshe warns that possession of the land is not magical protection. The land remains YHWH's gift and must be inhabited according to covenant faithfulness.

Mussar

When YHWH gives something fruitful—time, resources, relationships, knowledge, or opportunity—ask not only, **“What have I received?”** but also, **“For what purpose was it entrusted to me?”**

드라쉬: 축복이 특권의식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이 클수록 그 선물을 주신 분과 그 선물이 주어진 목적을 기억해야 할 책임도 커집니다.

소드: 풍성함은 올바른 언약 질서 속에서 흐르는 생명을 나타내고 황폐함은 그 질서가 깨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외적인 땅의 상태가 내적인 언약 붕괴를 반영합니다.

선물 → 망각 → 무질서 → 황폐함

열매를 맺도록 주어진 것이 그 선물의 기초가 되는 관계를 거부할 때 황폐해집니다.

그 대조는 의도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Yisrael 은 풍요롭고 열매가 많은 곳으로 반복해서 묘사된 땅에 들어가려 합니다. Moshe 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마법적인 보호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 땅은 여전히 야훼의 선물이며 언약적 신실함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야훼께서 시간과 자원과 관계와 지식과 기회와 같은 풍성한 것을 주실 때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만 묻지 말고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내게 맡겨졌는가?”****라고도 물으십시오.

“And all nations shall say, ‘Why has YHWH done so to this land? What does the heat of this great displeasure mean?’”

“모든 민족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 큰 진노가 타오르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할 것입니다.”

PaRDeS

Peshat: The devastation becomes so striking that surrounding nations ask why YHWH has treated the land this way. The answer will follow: Yisrael abandoned the covenant.

페샤트: 황폐함이 너무나 두드러져 주변 민족들이 왜 야훼께서 그 땅을 이렇게 대하셨는지 묻게 됩니다. 이어지는 답은 Yisrael 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Remez: Yisrael's covenant life is never entirely private. Both its blessing and its judgment communicate something about YHWH to the nations.

레메즈: Yisrael 의 언약적 삶은 결코 완전히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축복과 심판 모두가 여러 민족에게 야훼에 관한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Drash: A people called to bear witness to YHWH will bear witness one way or another. Faithfulness displays the wisdom of His ways; covenant failure displays the seriousness of abandoning them.

드라쉬: 야훼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증언하게 됩니다. 신실함은 그분의 길의 지혜를 보여주며 언약의 실패는 그 길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Sod: The nations' question—“**Why?**”—reveals that judgment itself becomes revelation. History forces observers to search for the spiritual meaning beneath visible events.

소드: 여러 민족의 **“왜?”**라는 질문은 심판 자체가 계시의 역할을 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관찰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사건 아래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게 합니다.

Energetic Flow

Devastation → Observation → Question → Revelation

황폐 → 관찰 → 질문 → 계시

The nations see the consequence, ask for its meaning, and are directed toward the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YHWH and Yisrael.

여러 민족은 그 결과를 보고 그 의미를 묻고 마침내 야훼와 Yisrael 사이의 언약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Meaning

This reverses the ideal picture of Devarim 4:6–8. There the nations see Yisrael's Torah-shaped wisdom and marvel at the greatness of the nation and the nearness of its Elohim. Here they see devastation and ask what went wrong. **Either way, Yisrael's relationship with YHWH becomes visible to the nations.**

Mussar

Our lives teach even when we are not speaking.

Faithfulness can cause others to ask about the wisdom of YHWH's ways; unfaithfulness can cause them to ask how something meant for blessing became broken. Therefore, live so that the questions your life creates point people toward YHWH's faithfulness.

이것은 Devarim 4:6–8 의 이상적인 모습을 뒤집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민족이 Torah 로 형성된 Yisrael 의 지혜를 보고 그 민족의 위대함과 그들의 Elohim 이 가까이 계심에 놀랍니다. 여기서는 황폐함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어느 경우든 Yisrael 과 야훼의 관계는 여러 민족에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말하지 않을 때에도 가르칩니다.

신실함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훼의 길의 지혜를 묻게 할 수 있고, 불신실함은 축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만들어내는 질문들이 야훼의 신실하심을 향하도록 살아가십시오.

Verse 24

“And it shall be said, ‘Because they have forsaken the covenant of YHWH Elohim of their fathers, which He made with them when He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Mitsrayim.’”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Elohim 야훼의 언약 곧 야훼께서 그들을 Mitsrayim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할 것입니다.”

PaRDeS

Peshat: The nations' question from the previous verse receives its answer. The devastation did not occur randomly; Yisrael **forsook the covenant** YHWH established with them when He delivered them from Mitsrayim.

페샤트: 앞 절에서 여러 민족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그 황폐함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Yisrael 이 야훼께서 Mitsrayim 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세우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Remez: The reference to the Exodus reminds Yisrael that covenant obligation follows redemption. YHWH first brought them out of slavery; afterward He called them to covenant faithfulness.

Drash: Yisrael's sin is described not merely as breaking individual commandments but as **forsaking a relationship**. Torah obedience cannot be separated from covenant loyalty to YHWH.

Sod: Mitsrayim represents bondage from which YHWH brought His people into covenant freedom. To forsake the covenant is therefore a movement away from the freedom YHWH gave and back toward another form of bondage.

Energetic Flow

Deliverance → Covenant → Faithfulness → Life

The tragedy reverses the flow: **Deliverance → Covenant → Forsaking → Exile.**

Meaning

YHWH did not redeem Yisrael because they had first perfected obedience. Redemption came first. Covenant obedience was their response to the One who had already delivered them. Therefore, forsaking Torah was more than violating rules; it was forgetting the Redeemer who brought them out of Mitsrayim.

Mussar

레메즈: 출애굽에 대한 언급은 언약의 책임이 구원 뒤에 따른다는 것을 Yisrael 에게 상기시킵니다. 야훼께서는 먼저 그들을 종살이에서 이끌어 내신 후 언약적 신실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드라쉬: Yisrael 의 죄는 단순히 개별 계명을 어긴 것으로 묘사되지 않고 **관계를 버린 것으로** 묘사됩니다. Torah 의 순종은 야훼께 대한 언약적 충성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소드: Mitsrayim 은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신 속박을 나타내며, 그분은 그들을 언약의 자유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버리는 것은 야훼께서 주신 자유에서 벗어나 또 다른 형태의 속박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입니다.

구원 → 언약 → 신실함 → 생명

비극은 이 흐름을 뒤집습니다. **구원 → 언약 → 버림 → 추방.**

야훼께서 Yisrael 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먼저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 왔습니다. 언약의 순종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분께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Torah 를 버리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Mitsrayim 에서 이끌어 내신 구원자를 잊는 것이었습니다.

Obedience becomes burdensome when we forget what YHWH has already done. **Remember redemption before considering obligation.** Gratitude gives obedience its proper foundation.

야훼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잊으면 순종은 짐처럼 느껴집니다. **의무를 생각하기 전에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순종의 올바른 기초가 됩니다.

Verse 25

“And they went and served other mighty ones and bowed themselves to them, mighty ones that they did not know and that He had not given to them.”

“그들이 가서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였으니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신 것들이었습니다.”

PaRDeS

Peshat: Yisrael abandoned exclusive loyalty to YHWH and worshiped foreign gods that had no covenant relationship with them.

페샤트: Yisrael 은 야훼께 대한 배타적인 충성을 버리고 자신들과 아무 언약 관계도 없는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Remez: The phrase **“they did not know”** contrasts sharply with Yisrael's intimate knowledge of YHWH through His acts of deliverance, revelation, and provision. They exchanged the One they knew for gods they did not know.

레메즈: *****“알지 못하던”*****이라는 표현은 구원과 계시와 공급을 통해 Yisrael 이 야훼를 친밀하게 알았던 것과 강하게 대조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분을 알지도 못하는 신들과 바꾸었습니다.

Drash: Idolatry is fundamentally a misplaced relationship. Something that never redeemed, sustained, instructed, or covenanted with Yisrael receives the devotion belonging to the One who did all these things.

드라쉬: 우상숭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계입니다. Yisrael 을 구원하거나 공급하거나 가르치거나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 것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께 속한 헌신을 받게 됩니다.

Sod: The heart possesses a capacity for devotion. When devotion is withdrawn from YHWH, it does not remain empty for long; it seeks another object to receive what belongs to Him.

소드: 마음에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야훼에게서 거두어지면 오랫동안 비어 있지 않고 곧 그분께 속한 것을 받을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Energetic Flow

Forgetting → Turning → Serving → Bowing

What began in 29:17 as the **turning of the heart** has now become visible worship.

Meaning

Notice the progression of Devarim 29. First the **heart turns** (v. 17). Then the person convinces himself that he will still have peace (v. 18). Eventually inward departure becomes outward worship (v. 25). Torah therefore treats the hidden direction of the heart seriously because the heart eventually shapes the life.

Mussar

Ask periodically: **What receives my deepest loyalty, trust, time, fear, and desire?** Our real objects of devotion are revealed not merely by what we say we worship but by what consistently governs our choices.

잊음 → 돌아섬 → 섬김 → 절함

29:17 에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숭배가 되었습니다.

Devarim 29 장의 진행을 주목하십시오. 먼저

마음이 돌아섭니다(17 절). 그다음 사람은 그래도 자신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18 절). 결국 내면의 이탈은 외적인 숭배로 나타납니다(25 절). 그러므로 Torah 는 마음의 숨겨진 방향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마음은 결국 삶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가장 깊은 충성과 신뢰와 시간과 두려움과 갈망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숭배하는지는 말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Verse 26

“Therefore the displeasure of YHWH burned against this land, to bring on it every curse that is written in this book.”

“그러므로 야훼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하여 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PaRDeS

Peshat: Because Yisrael abandoned the covenant and served other gods, the covenant curses described earlier in Devarim came upon the land.

Remez: The judgment is “**written.**” It was not unpredictable or arbitrary. YHWH had already warned Yisrael concerning the consequences of covenant rebellion.

Drash: Warning itself is an expression of mercy. YHWH reveals consequences beforehand so that His people may turn away from destructive paths before experiencing them.

Sod: Torah reveals that actions possess consequences built into covenant order. The outward collapse of the land exposes an inward collapse that began when Yisrael's loyalty shifted away from YHWH.

Energetic Flow

Warning → Choice → Consequence → Recognition

Torah warns before judgment so that repentance can interrupt the progression.

Meaning

The covenant curses should not be read merely as threats. They function as boundary markers saying, “**Do not continue down this road.**” The warning is severe precisely because YHWH desires His people to choose life rather than destruction. This prepares directly for Devarim 30.

페샤트: Yisrael 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Devarim 에서 앞서 설명된 언약의 저주가 그 땅에 임했습니다.

레메즈: 그 심판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훼께서는 이미 Yisrael 에게 언약적 반역의 결과를 경고하셨습니다.

드라쉬: 경고 자체가 긍휼의 표현입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이 파괴적인 길의 결과를 경험하기 전에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미리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소드: Torah 는 행동이 언약 질서 안에서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의 외적인 붕괴는 Yisrael 의 충성이 야훼에게서 떠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내적인 붕괴를 드러냅니다.

경고 → 선택 → 결과 → 깨달음

Torah 는 심판 전에 경고하여 회개가 그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합니다.

언약의 저주는 단순한 위협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길로 계속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경계 표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 경고가 엄중한 이유는 야훼께서 자기 백성이 파멸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Devarim 30 장을 준비합니다.

Mussar

Do not despise correction simply because it is uncomfortable. Sometimes the warning we least want to hear is the mercy that keeps us from reaching the consequence we least want to experience.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책망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경고가 우리가 가장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주는 긍휼일 수 있습니다.

Verse 27

“And YHWH uprooted them from their land in displeasure, and in wrath, and in great rage, and cast them into another land, as it is today.”

“야훼께서 진노와 분노와 큰 격노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시고 다른 땅으로 던지셨으니 오늘과 같습니다.”

PaRDeS

Peshat: Persistent covenant rebellion ultimately results in exile. The people who were planted in the promised land are **uprooted** and sent into another land.

페샤트: 지속적인 언약의 반역은 결국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심어진 백성이 **뽑혀** 다른 땅으로 보내집니다.

Remez: “**Uprooted**” continues the agricultural imagery of this chapter. Earlier there was a poisonous **root** (v. 17); now the nation itself is **uprooted** from the land.

레메즈: ***“뽑아내다”**라는 표현은 이 장의 농경적 이미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앞에서는 독을 맺는 **뿌리**가 있었고(17 절), 이제 민족 자체가 그 땅에서 **뽑혀** 나갑니다.

Drash: What Yisrael permits to take root within eventually affects whether Yisrael remains rooted in the land. Inner covenant disorder produces outward displacement.

드라쉬: Yisrael 이 자기 안에 무엇이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하는가는 결국 Yisrael 자신이 그 땅에 계속 뿌리내릴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적인 언약의 무질서는 외적인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Sod: The land and people are covenantally related. Exile symbolizes rupture: a people called to dwell with YHWH in His appointed place experiences

소드: 땅과 백성은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방은 단절을 상징합니다. 야훼와 함께 그분이 정하신 곳에 거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그 땅에

displacement because it rejected the relationship giving the land its meaning.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Energetic Flow

Poisonous root → Bitter fruit → Covenant rupture → Uprooting

독한 뿌리 → 쓴 열매 → 언약의 단절 → 뽑힘

The chapter's imagery forms a powerful pattern: **what is allowed to root in the heart eventually determines what remains rooted in life.**

이 장의 이미지는 강력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뿌리내리도록 허용하는지가 결국 삶에서 무엇이 계속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Meaning

The language anticipates exile, but exile will not have the final word. The very next chapter begins, **“And it shall be, when all these words come upon you...”** and describes return to YHWH and restoration. Judgment uproots, but repentance opens the way toward gathering and restoration.

이 언어는 추방을 미리 보여주지만 추방이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은 **“이 모든 말씀이 네게 임하여...”**로 시작하여 야훼께로 돌아옴과 회복을 설명합니다. 심판은 뽑아내지만 회개는 다시 모임과 회복으로 가는 길을 엽니다.

Mussar

Pay attention to what you allow to become **rooted** within you. Repeated thoughts become desires; repeated desires shape choices; repeated choices form character; character eventually shapes the direction of life.

당신 안에 무엇이 **뿌리내리도록** 허용하는지 주의하십시오. 반복되는 생각은 갈망이 되고, 반복되는 갈망은 선택을 형성하며, 반복되는 선택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결국 삶의 방향을 형성합니다.

Verse 28

“The secret matters belong to YHWH our Elohim, but what is revealed belongs to us and to our children forever, to do all the Words of this Torah.”

“감추어진 것은 우리 Elohim 야훼께 속하였으나 나타난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 Torah 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PaRDeS

Peshat: Moshe distinguishes between what YHWH has kept hidden and what He has revealed. Yisrael is responsible not for hidden matters belonging to YHWH but for obeying the Torah He has clearly revealed.

Remez: The verse places a boundary around human curiosity. There are mysteries belonging to YHWH, while revelation has been given for human responsibility.

Drash: The purpose of revelation is explicitly practical: **“to do.”** Torah was not revealed merely so that Yisrael could possess information, debate mysteries, or accumulate knowledge. Revelation calls for obedience.

Sod: Even Torah acknowledges mystery. The deepest wisdom is therefore not pretending to know everything but knowing the boundary between what YHWH has concealed and what He has entrusted to human beings.

Energetic Flow

Hidden → YHWH | Revealed → Us → Children →
Doing

Revelation flows from YHWH to one generation, through that generation to its children, and finally into obedient action.

페샤트: Moshe 는 야훼께서 감추어 두신 것과 계시하신 것을 구별합니다. Yisrael 은 야훼께 속한 감추어진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분명히 계시하신 Torah 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레메즈: 이 절은 인간의 호기심에 경계를 설정합니다. 야훼께 속한 신비가 있는 반면 인간에게는 책임을 위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드라쉬: 계시의 목적은 분명히 실천적입니다. 곧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Torah 는 Yisrael 이 단순히 정보를 소유하고 신비를 토론하거나 지식을 축적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소드: Torah 자체도 신비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깊은 지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감추신 것과 인간에게 맡기신 것 사이의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 → 야훼 | 계시된 것 → 우리 → 자녀 →
행함

계시는 야훼로부터 한 세대에게 흘러가고 그 세대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되며 마침내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Meaning

This verse provides a remarkable conclusion to the chapter. Devarim 29 began with **all Yisrael standing before YHWH** and ends by defining their responsibility. They do not need access to every divine mystery. YHWH has already revealed what they need in order to walk faithfully. The question is therefore not, **“Do I understand everything?”** but **“Am I doing what YHWH has already revealed?”**

Mussar

Do not allow what you do not understand to distract you from what you already know to do. Some things belong to YHWH. What He has clearly revealed belongs to us—and revelation becomes fruitful when it becomes obedience.

이 절은 이 장에 놀라운 결론을 제공합니다.

Devarim 29 장은 **모든 Yisrael 이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들의 책임을 정의하면서 끝납니다. 그들은 모든 신적 신비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훼께서는 이미 신실하게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야훼께서 이미 계시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에서 당신의 시선을 빼앗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야훼께 속합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계시하신 것은 우리에게 속하며, 계시는 순종이 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